

美國大學의 이모저모



白 勝 基
(嶺園大學長)

I.

오늘날 세계의 어느 나라나 학문연구의 산실로서, 지성을 대표하고 나라의 人才를 양성하는 대학사회가 존재하는데, 이 대학교육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성적인 학풍의 진작을 위해서나 실용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막중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필자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 대학에서 지내온 경험을 통해서 그곳의 대학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기로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미국의 대학들이 안고 있는 재정문제, 구조적인 문제, 기능면의 어려움 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태도(그들이 학교당국에 요구하는 권익문제와 도덕적인 면에서 본 교수들에 대한 태도 등)와 교수들의 동향 등에 대해서 필자가 느낀 점을 간략하게 서술하기로 한다.

II.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들은 불안정한 재정상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주립대학들(미국에는 사관학교나 연방정부직할시인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학이 있으나, 주립대학이 우리나라의 국립대학과 같음)이 비교적 사립대학들에 비하여

높은 재정면의 안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부의 하버드나 예일대학, 서부의 스탠포드대학 등 몇몇 이름있는 사립대학들은 원래 재단이 견실하여 지원이 많고 능력있는 졸업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도움이 커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많은 사립대학들은 학생수의 격감과 경제 불황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대학문을 아예 닫는 예도 눈에 드는 편이다. 또 비록 문을 닫는 데까지는 안 갔어도 교수와 직원들의 봉급을 올려 줄 수 없어서(대부분의 학교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매년 봉급을 올려주고 있음), 교수들이 급료증액을 강청할 경우 학교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치는 대학도 있다. 그곳에서는 아마도 대학 총학장의 가장 큰 책무가 학교를 위한 자원확보이며 그 실적에 따라 능력이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대학들 가운데에서도 주 자체가 가난하여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정부의 지원이 학생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변두리 대학들은 학생유치를 위해 대학에서 공부할 실력이 못되는 부적격자들을 마구 뽑아 들이는 폐단을 낳게 된다. 미국의 대학들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전체 예산의 20%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Ⅲ.

본래 구라파에서 시작된 대학의 이념은 순수 학문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인격완성을 성취하는 요람으로 대학이 설립되었고, 오늘날의 대학은 전문분야의 기술습득을 가르쳐 적능인을 만드는 일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의 대학들은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사회와 연계되어 유능한 기술인을 사회에 공급하는 모체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대학 졸업생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들 수 있겠다. 한때 우주를 향한 로켓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물리학이나 그와 관련된 전공분야의 학문을 이수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였고, 오늘날과 같은 산업정보화 시대에는 전산학과등을 전공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요구하는 실제적인 전문인력의 수와 이러한 추세를 감지한 예비 인력간의 공급의 불균형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최근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한 자율적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 원칙을 대학교육에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에 시간의 차이를 낳고 있는 것이다.

한때 월남전을 피하기 위해 1960년대 말기와 1970년대 초기에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학으로 몰려들었는데, 전쟁이 끝나자 과다하게 배출된 졸업생들의 소화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다. 또 그동안 확장시킨 대학의 시설, 특히 확장과정에서 과다 증원된 교수들의 처우문제가 심각하였다.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 입학생을 그 전에 비하여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고, 어떤 대학들은 학과의 폐쇄등으로 영구직을 받은 교수들을 포함해서 수백명의 교수들을 해고하여 학교 당국과 교수들의 문제가 법정 투쟁으로 번지는 예도 있었다. 현재에도 어떤 전공학과의 졸업생은 그 학위가 학사이거나 박사이거나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또 어떤 학과의 졸업생은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기에,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변모하는 산업화시대를 맞아 이에 요청되는 고급기술인력의 확보가 문제되고 있으나, 다른 제학문분야의 균형있는 발전과, 그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공학과의 설치, 인원조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학문 상호간의 기능적인 면에서도 전공분야가 보다 세분화되어 있어 각 분야간에서 서로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행정학과와 경영학과의 다같이 경영의 기초 이론을 다루어야 하고, 정치학과와 사회학과의 함께 국가권력의 문제 등을 다루어야 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학에서 최근에 시작된 행사행정학은 어느 학교에서는 정치학과(미국에서는 행정학과와 정치학과가 함께 합쳐 있는 대학이 많음)와 연결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는 사회학과의 속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분야를 함께 전공하는 새로운 복합 전공분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교수들간에 서로 자기 전공분야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두드러져 각 전공분야간에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의 연구결과나, 배출시킨 전문가들이 사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을 통감하게 되는 사례도 종종 지적되었다.

여러면에서 전통교육의 모랄이 도전받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학내부의 문제와 함께, 오늘날의 미국 대학사회는 절차 규범이 허물어져 가고 기존의 가치관을 탈피하려는 방향으로 기울어 가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고도산업사회, 탈산업사회로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기능주의적 분화성에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기본자세를 인식시켜 주는 철학의 빈곤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분석기능 위주의 대학교육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않을까?

Ⅳ.

다음으로는 대학과 학생간에 야기되는 문제점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얼마전에 어느 대학생이 배운 것이 없으니 등록금을 돌려 달라고 법원에 학교당국을 제소한 일이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동양적인 도덕관에서 볼 때 여러가지 착잡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서 얻은 것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대학당국의 책임있는 지도를 전제로 할 때에 말이다.

워싱턴에 있는 하워드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을 마칠 때 치르는 종합시험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청원한 일이 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오벌린대학에서는 몇년 전에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에 비해 몇명 안되는 자기들을 낳게 시키지 말 것을 학교당국에 시위로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물론 미국에서는 평균 27%의 대학생들이 1,2학년 과정에서 탈락된다고 하니 특정한 대학에서 소수의 흑인학생들이 아주 탈락되어 교육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종류의 학생들은 시험의 규제를 벗어나도 되는지 의문이다.

유명한 역인종차별의 문제를 대학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캘리포니아주의 몇몇 주립대학(주수도인 세크라멘토에 있는 의과대학과 법과대학 등)은 소수민족을 위한 입학쿼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그 주에 많이 살고 있는 멕시코계, 흑인계, 동양계를 주축으로 한 소수민족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가를 주정부에서 양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경우 소수민족 출신 입학생의 성적이 백인 학생들의 성적보다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키라는 백인이 소수민족 출신 입학생보다 성적이 좋았으나 그들을 위한 쿼터 때문에 낙방하게 되었으니 구제해 달라고 법원을 찾은 것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문을 통하여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긴 안목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특정한 소수민을 위한 학교쿼터제를 택할 수 있으나, 바키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것은 부당하니 입학을 시켜 주도록 하라고 호소한 판결을 내렸다. 여하간 소수민족의 인종차별문제와 백인의 역인종차별문제 등이 대학의 행정과도 관계가 되어 있어 여러가지 문제를 던지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을 게시판에 공표할 경우, 학생 개인의 인격존중을 위하여 학생들의 이름을 쓸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통한 경력기록등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학생들이 원한다면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보호조치가 되어 있다.

좀 다른 면이지만,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을 위해 필요한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해야겠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사회들은 인사문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모임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학생대표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참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좀 보수적인 대학의 이사회에서는 학생대표의 이사회 참석자격을 제한하여 투표권이 없이 의사발언만을 허용하는 경우도 보았다.

대학생들의 시험부정 문제도 그들의 사고방식과 관련시켜 생각할 때 하나의 어려운 과제가 된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낙제를 면하여 졸업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학생들은 각종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시험감독이 없이 서로를 감시하고, 부정행위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도 부정이라는 명예를 전통으로 삼아온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조차도 부정사건이 일어날 정도이다. 이와 관련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하바드대학이 배출한 정치학박사가 국방성의 비밀문서를 몰래 복사하여 뉴욕 타임즈에 넘겨준 사건이 있고, 얼마 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절도행위의 혐의를 받아 화제거리가 된 일도 있다.

미국사회에서는 최근까지 이력서에 기재한 출신학교를 확인하지 않고 믿어 왔으나 많은 부정 이력서가 발견되어 소위 명문대학에서는 그 문의에 답변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으로 법과대학을 졸업한 법관이나 의술을 부정으로 배운 의사를 생각할 때 이것은 대학의 문제 뿐 아니라 전체 사회에 위협을 주는 중대사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학교육과 사회에서의 수입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측정한 많은 자료가 있다. 장기적인 면에서는 서로 비례관계가 성립된다고 하지만, 운동선수나 특기물 가진 사람들의 높은 수입이 대중에 알려지고 있어, 물질적인 기준만을 강

조하여 대학교육의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사례도 있다.

V.

다음으로 교수들과 대학당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수들이 권익옹호를 위하여 교수회의나 교수평의회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참여하려는 노력이 뚜렷하다. 학사문제는 물론 각종 체육활동에 이르기까지 교수들이 자문역을 벗어나 정책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예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 예로는 대학교수들의 조합(이익단체)이 이루어져 집단으로 봉급 인상등을 교섭한 결과 다른 지역의 교수들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뉴욕 지방의 생활비가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 사실을 고려한 뒤에도 비교적 높은 봉급을 받는다고 함)

어떤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연구실적에만 치중하여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는 문제가 있다. 학계에서 흔히 말하는 소위 “출판(저서의) 아니면 도태”의 압력으로, 조교를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진교수들이 많다는 중론이다. 하바드대학 같은 곳에서도 중진교수들의 기초과목 강의 기피현상이 문제가 된 일이 있다. 결국 대학의 본래 사명이 그렇듯이, 교수들이 가르치는 일과 연구하는 일을 균형있게 분배해야 하겠고, 학교당국도 이 점을 이해하여 적절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교수들의 유아독존적인 군림의식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대학원 과정이 우리나라나 구라파의 경우에 비하여 비교적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학위과정에서 지도교수의 방향을 거의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모순이 있다. 진리를 탐구하는 최고학부에서 장래 교수가 될 학위지망생들을 기르는 과정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라면 이것은 정상적인 학문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요소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교수와 학생관계가 학문 위주로 흐르다 보니 비인간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이 교수들을 대할 때, 가르치고 돈을 받는 직업인으로 보니, 동양적인 사제관계의 장점

은 찾아 볼 수 없는 형편이다.

교수와 학생간에 시험점수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잡음이 가끔 신문에 오르내리는 문제가 있다. 음악이나 미술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지도의 기회가 많고 또 시험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교수들의 횡포도 있을 수 있고, 여학생들과의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타임지에 특집기사로 실린 일이 있다.

VI.

지금까지 대학의 문제점들만 생각나는 대로 살펴 보았는데 끝으로 미국대학생들의 생활상과 교수들의 자랑을 간단히 소개해 볼까 한다. 우선 학생들은 졸업후의 취업가능성을 생각하고 자신의 적성등을 고려하여 전공을 택하는 것 같고, 그 전공분야가 널리 알려진 대학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기에 입학조건이 서로 다른 각 대학의 특성(예를 들어 매세추세즈공과대학에서는 높은 수준의 수학실력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서 준비를 해 두어야 진학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학비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수 마련하고 있는데, 여름방학(보통 3개월)에 열심히 일하면 일년 공부할 학비를 벌 수 있으며 교내에서 일하는 근로장학생제도가 널리 애용되고 있다. 또 대여장학금제도를 이용하여 학비가 비싼 의과대학등의 학생들은 혜택을 받고, 졸업후에 갚는 경우가 있다. 학군단등 군에서 학비를 지원 받으면, 졸업한 후에 일정기간 복무해야 하는 제도도 있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과외활동 등을 통하여 자유와 낭만을 만끽하고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다. 각종 남녀우애모임이나 특기활동이 활발하고 언어사용 영역이 넓어 외국유학의 기회도 많은 편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학들이 당면한 문제점, 학생들의 대학생활, 교수들의 동정 등에 대해 주마간산식으로 두서없이 적어 보았다. 미국의 대학사회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꺾꺾와 글을 통하여 소개되어 온 바이지만, 이 글이 최근 새로이 변모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상황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